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5월 13일 (아버지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8-10절

설교제목 : “따로 세우고”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종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합니다.(딤후3:1-2) 또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자들의 죄악들을 서술하는데,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에 세상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말세의 때일수록 이 세상의 풍조는 더욱 더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풍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 부모들의 책임은 자신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에베소의 회당을 다시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8절)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9절 상반절)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제를 완전히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9절 하반절) 우리 말 ‘따로 세우다’로 번역된 ‘아포리조’는 뚜렷이 ‘경계를 정하다’, 혹은 ‘한계선을 긋다’, ‘구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분명한 선을 그어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구별하여 따로 세웠다고 해서, 그들이 에베소를 떠나 외딴 수도원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로 세웠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공간과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란,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을 분명하게 구별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는 참된 소금의 역할과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참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켜 자신을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세상으로부터 따로 세워진, 구별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별된 성전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교사의 역할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선한 도리를 전해야 합니다. (잠4:1-2) 선한도리란 성경의 사상입니다.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의 사상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선한도리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한 돌 판이 아니라, 두 돌 판에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돌 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대신계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제 4계명까지는 모두 ‘엘로힘’(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 판은 인간 사이에 행할 대인계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 제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외한다’는 말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레위기 19:3은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만큼은 하나님처럼 경외의 대상입니다. 부모가 그만큼 비중이 크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전인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이 세대로부터 따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따로 세워 날마다 교육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자녀를 구별하여 날마다 교육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효도교육은 가정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신27:16) 여기서 ‘경홀히 여기다’란 히브리어 ‘칼라’는 그 뜻은 ‘모욕하다’, 혹은 ‘업신여기다’입니다.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장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됩니다.(엡6:2-3)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오래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부모공경하는 자녀들이 삶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려서부터 효도교육을 받은 자녀는 성품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효도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부모뿐만 아니라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압니다. 따라서, 효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원활하여 직장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아랫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결국 성전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철저하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잘되는 복을 누리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적인 복을 받으려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부모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세대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따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부터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2) 에베소서 6:2-3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장수하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기독교의 효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